

# KERI Brief

## 시진핑 시대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시사점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khlee@keri.org)

새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12월 15~16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2013년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국가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고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고,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경제 운용의 토대가 되는 제12차 경제계획, 제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 드러난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서 질적 성장위주의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응하여 한국경제가 중국 특수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중국 신정부가 기존 '수출중심 고성장 모델'에서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 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한

국의 대중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큰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계층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 신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피고용인에 대한 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요소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시진핑 지도부는 지역협력, FTA 등 대외 개방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이익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신흥 전략산업은 한국의 주력 육성 산업과도 매우 유사한 바, 이는 향후 양국간 산업 경쟁 심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 1. 문제제기

□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길게 될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전환점에 선 중국의 경제 정책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과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 연평균 10%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2010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 내부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수출중심의 성장 모델에 한계 노정

- 또한 고성장 이면에 계층간, 지역간 및 산업간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요구되는 상황<sup>1)</sup>

□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수출중심 정책에서 내수중심 정책으로, 고성장 정책에서 분배를 고려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약 25%, 수입의존도는 약 17%(2011년 기준)

□ 본고는 새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고, 그에 대응하여 한국경제

가 중국 특수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살펴봄.

-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 신 지도부의 경제 운용의 토대가 되는 제12차 경제계획, 제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12월 15-16일 개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2.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

### (1) 중국의 제12차 경제계획의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12차 5개년 계획'이 지난 2010년 10월 제시되었는 바,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적어도 2015년까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경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

- 제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불균형 성장 방식을 전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춤(경제의 질적 발전 도모).

○ 기존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11~2015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7% 정도로 유지할 것을 목표

-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① 내수 확대, ② 농업현대화, ③ 산업경쟁력 강화, ④ 지역 발전 및 도시화, ⑤ 자원절약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⑥ 과학교육과 인재강국, ⑦ 사회건설과 공공서비스, ⑧ 문화 및 소프트파워 제고, ⑨ 분야별 개혁의 심화, ⑩ 대외개방 확대 등을 제시

1) 최근 중국의 South 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에서 발표된 중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값은 0.61로 매우 높은 편.

-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확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 소득분배 개선의 방식, 향후 산업육성의 방향, 대외정책 방향 등이 새롭게 제시됨.<sup>2)</sup>

○[내수확대] 소비수요가 내수시장 확대의 중점이며, 중국 소비시장을 '세계적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장기적 비전 제시

○[소득불균형 해소]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redistribution) 정책, 사회보장 혜택 확대, 취업을 제고, 임금인상 등 요소가격 조정을 통한 초기분배(primary distribution) 정책 등 강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현재 2% 수준인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2015년 8%, 2020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 2011~2015년간 문화산업 비중을 GDP의 5~6% 수준으로 증대(2011년 3%)

○[대외개방 확대] 대외정책 방향으로 지역협력 강화 모색, FTA 정책 적극 추진,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 등을 강조

## (2) 제18차 당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

□ 2012년 11월 개최된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바, 당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을 통해 중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제12차 5개년 계획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2020년 전면적 소강 사회(小康

社會)\* 건설 달성을 주요 목표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점이 주요 특징

\* 소강사회(小康社會):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이라는 뜻으로 13억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갖추는 경제발전 단계를 지칭

○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 수준을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설정<sup>3)</sup>

\* GDP 5조 7,394억 달러(2010) → 약 11조 5,000억 달러(2020)

\* 1인당 GDP 4,433달러(2010) → 약 9,000달러(2020)

○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경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저임 노동력에 기반한 요소투입형,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에서 기술혁신형, 내수주도형의 성장방식로의 전환을 모색

○ 또한 국영부문과 민영부문의 균등 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 및 농촌의 균등 발전, 개방형 경제 등을 강조

## (3)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 중국의 2013년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2년 12월 15~16일 개최되었는데<sup>4)</sup> 이번 회의는 제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 구성된 시진핑 지도부가 본격적인 국가운영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2) 지만수 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7기 5중전회를 통해 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2010.11.29.

3) 1인당 GDP 2배 달성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약 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야 함.

4)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1차례 개최되어 다음해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거시경제의 운영기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 3월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도 앞서 살펴본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 및 제18차 당대회 보고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핵심 내용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질과 효율을 높이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임.

- 그동안 양적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서 질적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발전모델 추구(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추진)

- [대내정책]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도시화, 취업률 제고, 사회보장 확대, 부동산 안정, 구조조정 및 개혁 등에 중점<sup>5)</sup>

○ 산업 구조개혁 및 고도화추구, 산업별 과잉설비투자 문제해결, 창의성을 발휘하여 브랜드 상품을 양성하고 산업을 다양화함.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 도입, 빈곤층 자녀 학업지원, 청년 취업 문제 해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 추진

○ 급속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농업, 농민, 농촌(삼농, 三農)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기초를 다지고 농업선진화를 추진하며 동시에 13억명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생산기술을 개선

○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도시근로자에게 도시민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여 시민화를 추진하고 소득을 높여 소비증진 유도

○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어 저임금노동자로 전락하는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근접농촌의 도시화추구 및 민생 안정망 구축(최저임금, 사회보험, 사회적 책임 강화 등)<sup>6)</sup>

○ 부동산시장 규제유지 및 서민주택 공급확대, 과잉투자 분야 인수합병과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영기업 개혁 추진

- [대외정책] 전면적 개혁개방 강화,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개방 산업 확대 및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4) 종합평가: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

□ 제12차 5개년 계획, 제18차 당대회 및 2013년 경제공작회의 등에 드러난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관성 있게 ‘양적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서 질적 성장위주의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함.

- [질적 성장 추구]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소득 불균형 완화] 분배정책을 통해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확대된 지역간, 도농간, 사회계층간 소득격차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문화혁명 당시 하방경험을 통해 농촌문제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부는 전국민 사회보험 확대 실시, 서민주택공급 확대, 최저임금수준 제고, 취업문제 해결 등 민생 제고를 위한 경제현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

\* 2011년 기준 지역간 소득격차(1인당 GDP 5배; 텐진 약 8만 5천

5)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과 매일경제 “‘시진핑 경제’ 키워드는 소비와 투자”, 2012.12.6. 참조.

6) 중국 농민공은 약 2.7억명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인구(약 8억명) 가운데 약 33% 차지.

[표] 제1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구분	제1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sup>1)</sup>	제18차 당대회 보고	중앙경제공작회의 <sup>3)</sup>
거시경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2015년 경제성장률 연평균 7%</li> <li>내수우선 경제구조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과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증대</li> <li>소득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주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경제성장 가운데 개혁을 통한 성장 강조 (은중구진轉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li> </ul>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 제조업 양성</li> <li>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li> <li>* 2011~2015 기간 중 문화산업 비중을 GDP의 5~6% 수준으로 증대(2011년, 3%)</li> <li>도시화 달성</li> <li>도로항만건설 인프라 확충</li> <li>농촌경제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화 및 서비스화</li> <li>7대 신성장동력 산업육성</li> <li>지역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li> <li>내수주도형 경제 전환</li> <li>강도 높은 도시화 정책 추진</li> <li>삼농(농업, 농촌, 농민)문제 해결, 농업의 현대화, 농민생활 개선</li> <li>금융산업 개혁</li> </ul>
환경친화·자원 개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li> <li>경제발전단계별 환경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녹색성장 추진 위해 제도적·법적장치 확충</li> <li>환경보호관련법을 대폭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정책</li> </ul>
민생개선 (소득불균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개선 및 분배균형 유도</li> <li>취업을 제고</li> <li>사회보장혜택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평강조, 빈부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 도입</li> <li>빈곤층 자녀 학업지원</li> <li>청년 취업 문제 해결</li> <li>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li> <li>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험 확대</li> </ul>
세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 감면</li> <li>차등세율 적용</li> <li>고소득자 증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보유세제 개선조치<sup>2)</sup></li> <li>상속세 및 증여세 점진도입 가능</li> </ul>	
대외통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자유치 증대</li> <li>해외진출 확대</li> <li>여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해외투자확대<sup>2)</sup></li> <li>위안화 국제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li> <li>금리 및 환율의 시장결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적 개방 강조</li> <li>민간자본 투자개방 산업 확대</li> </ul>

자료: 1) 국제금융센터, “中, 차세대 지도부의 정책방향 점검”, 2012.11.12, 참조.

2) 박한진,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4 - 18차 당대회 이후 경제현안』, globalwindow, 2012.11.6, 참조.

3)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차이나데일리, 经济参考报 등 종합하여 정리.

위안, 구이저우 1만 6천위안), 도농간(3.13배), 계층간(수십 배: 고속  
 련 저속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sup>7)</sup>

- **[내수시장 확대]**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모델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주도형 경제발전 방  
 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가계소득 증  
 대 및 도시화 추진 예상

○ 최대 약 40%에 달하는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임금인상 예상

○ 호구제도 개혁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원활하게 하며, 주변농촌을 도시에 편입시켜 낙  
 후지역의 도시화 유도

\* 2020년까지 도시화율 60% 달성목표: 도시화율 (2010:  
 47.5%), (2015: 51.5%)

- **[대외개방 가속화]**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를 통해 산업 및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 특히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정이 예상되며, 위안화사용 국제결제 비율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도입  
 및 국내기업의 생산성 증대 모색

-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  
 능한 질적 성장 추구

○ 기존 중국경제를 이끌었던 철강, 시멘트, 평면유리, 석  
 탄화학공업, 폴리실리콘, 풍력발전설비 산업에서 과대  
 한 설비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

한 규제확대 예상

○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환경보호형 신형 전략산업을 육  
 성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및 바이오공학, 신재  
 생에너지 산업의 진흥 모색 예상

□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기득권층에 비해 개혁추진  
 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평 및 민생 제고를 위한  
 소득불균형 완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농촌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출  
 범 초기인 시진핑 지도부가 지방정부의 정치·관료·  
 기업이 결탁한 부패 및 불법행위를 척결하기는 쉽  
 지 않을 것임.

○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내  
 농촌문제 해결 및 도시 근접농촌의 도시화를 적극 추  
 진하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을 향상시켜  
 야 함.

○ 하지만 기득권층은 토지수용, 부동산 이권확보를 통해  
 지방정부를 이권위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중앙정  
 부의 도시화와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실행  
 과 대립할 수 있음.

- 기득권층(장쩌민 계열 상하이방, 후진타오 중심의 공산주의 청년  
 단파)에 대한 부패 개혁 및 제도 개선을 단행할 경우  
 시진핑 중심의 고위간부 자제출신 태자당파의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임.

○ 중국 역대 지도자 교체 시마다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  
 딛쳐서 정치개혁 추진력을 상실함.

7) 상하이무역관,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 경제 예측 8] 중국 공  
 산당 신임 지도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globalwindow, 2012.11.15.

□ 한편 내수활성화, 대외개방 가속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정책과 일치하므로 시진핑 시대에도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 지도부는 5년 후 공산당 대회에서 재선임되기 위해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1기에는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운영방안을 큰 변화없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한·중 경제관계의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에 대응] 중국 신정부가 기존 '수출중심 고성장모델'에서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

-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0.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sup>8)</sup>, 기존의 대중 비즈니스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7%, 2013년에는 8.2%로 예상
- 세계은행은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4%로 전망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2년과 동일하게 2013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설정

- 기존 대중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전기·전자 부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였으나, 중국이 서비스산업 및 내수 중심 전략으로 선회함

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 산업 구성 가운데 서비스 및 최종 소비재 수출 비율을 늘려야 할 것임.

- 가치사슬의 대부분을 한국에 남겨두고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던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앞으로는 가치사슬의 보다 많은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중국 내부에 보다 깊숙이 편입하는 현지화 전략이 요구될 것임.

□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대비]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큰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증대 도모 필요

- 중국이 내수확대 전략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의 내수 증가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규 수요 확대 여력이 큰 최종 소비재 수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2008년 기준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비중은 약 3~4%로 매우 낮음).

- 중국 내수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이 요구되는바, 중국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현지화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이 내수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화 전략 수행 과정에서 인프라,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바, 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의 증산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들의 의료·교육·법률·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금

8) People's Daily Online(January 21, 2012) 내용 참조.

용·보험 산업의 선제적 투자와 중국 진출이 요구됨.

□ **[중국의 요소가격 상승에 대비]**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 신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비용 상승 초래

- 신정부의 불균형 해소 정책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노동집약제품 생산 기업은 중국 내륙이나 인건비가 더욱 저렴한 여타 국가로의 투자전환 필요

\* 2012년 1월 북경의 월급여 기준 최저임금은 8.6% 인상된 1,260위안, 심천은 14% 증가한 1,500위안, 천진은 13% 인상된 1,310위안 (내륙 지역은 700~800위안 대)

\* 2012년 기준 중국의 최저임금은 미국과 비교하여 1/4 수준이지만 이는 2004년 1/12 수준과 비교 시 현저하게 높아진 수준

□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 정책 적극 활용]** 시진핑 지도부는 지역협력, FTA 등 대외개방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이익제고 도모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관세 인하와 더불어 서비스산업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 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상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 차세대 지도부는 금융산업 유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중 FTA를 통해 금융산업 진출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신정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

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중국 자본의 한국 유치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예, 중국 자본과 한국 기술의 결합, 중국 자본의 한국 서비스산업 투자 유치 등).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대비]**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신흥 전략산업은 한국의 주력 육성 산업과도 매우 유사한 바, 이는 향후 양국간 산업 경쟁 심화 유발 가능

- 따라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산업의 발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